

##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출범과 과제

류 창 원 연구위원(cwryu@hanafn.com)

2022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공식 출범한다. 그간 정부에서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마이데이터의 근간을 마련했고, 금융부문에서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였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출시로 빅테크, 핀테크, 금융회사간 데이터에 기반한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안착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금융정보가 API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의료 등 비금융 정보를 포괄하여 생활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 ■ 2022년 1월, 한달간의 시범 운영을 마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공식 출범

- 정부는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금융부문은 선도적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산업)을 신설
  -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원본 그대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마이데이터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 의의
-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별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본허가를 받은 45개('21.10.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운데 2021년 12월, 17개 사업자가 API방식을 통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월 정식 시행


### ■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출범으로 금융산업에서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

- 고객의 금융 비대면 접점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양한 겸영·부수업무를 기반으로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진화할 전망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라는 기본 업무외에 대출 중개 및 주선, 금융상품자문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 겸영업무로 가능
- 금융회사는 상품 제조에 집중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판매채널 역할이 강화되면서 금융업의 제판분리가 가속화
- 이 가운데 빅테크는 대규모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기존 비금융 서비스에 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어 비금융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금융회사보다 차별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에 유리할 전망

## ■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보안 우려 해소가 급선무

- 부정확한 정보가 나타나거나 업권간 정보 공유 미비로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게 되면 나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소비자의 기본 효용이 크게 저하
  - 가령 보험 데이터의 경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상 정보 전송 범위가 주계약 기준 장기인보험으로 한정되어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제외
  - 금융위원회는 제도변경이 있었거나 시스템 개발 부담이 컸던 ISA, 일부 퇴직연금,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의 정보는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스크래핑 방식에서 표준화된 API방식으로 전환시 정보 제공자와 가공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

## ■ 다양한 비금융 정보까지 결합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생활금융플랫폼으로 고도화할 필요

-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면서 기관과 공유할 정보의 범위 및 양을 확대
  - 미국은 민간기업중심의 데이터 유통시장이 활성화된 가운데 최근 ‘서비스 스위칭 허용 법안’을 통해 데이터 이동성을 강조
  - 영국은 결제 데이터를 공개하는 ‘Open Banking’이 대출, 연금, 보험 등으로 확대되는 ‘Open Finance’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 에너지 산업 등의 데이터 공유도 모색
  - 일본은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국내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정보은행’ 제도를 운영중이며 법 개정을 통해 의료 데이터 유통을 촉진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반영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의료, 공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도록 개별 업권법 개정 등의 법률 보완과 함께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 

### ■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의향 ('21.3 조사)

구분	내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용 의향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9.0%	55.6%	28.2%	5.0%	2.2%
관심 이유 (복수 응답)	· 내 정보를 한곳에 모음 (69%) · 지출/자산관리에 도움 (56.7%) · 포인트, 혜택 정보를 모음 (42.1%) · 온라인 및 앱 사용이 간편해짐 (33.1%) · 데이터의 주권을 내가 갖게됨 (24.9%) · 맞춤 상품 및 서비스를 추천받음 (24.1%)				
관심 없는 이유 (복수 응답)	· 개인정보 노출 우려 (59.7%) · 여러 곳에 있는 내 정보를 모을 필요 없음(25%) · 지출/자산관리에 큰 도움이 안 됨 (23.6%) · 데이터 주권이 잘 이해되지 않음 (19.4%)				

자료 : VISA, 마이데이터 소비자 인식 조사 ('21.3)

### ■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업권	주요 제공정보
은행	예·적금 계좌잔액 및 거래내역, 대출잔액·금리 및 상환정보 등
보험	주계약·특약사항, 보험료납입내역, 약관대출 잔액·금리 등
금투	주식 매입금액·보유수량·평가금액, 펀드 투자원금·잔액 등
여전	카드결제내역, 청구금액, 포인트 현황, 현금서비스 및 카드로 내역
전자금융	선불충전금 잔액·결제내역, 주문내역(13개 범주화) 등
통신	통신료 납부·청구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공공	국세·관세·지방세 납세증명, 국민·공무원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등

자료 : 금융위원회